

한인사회, 뉴욕에 마스크·손소독제 기부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코로나19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1만1,600달러 어치의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7일 UPI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재단(학장 김민선), 애플루트뉴욕(회장 김현중),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전날 뉴욕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KN95 마스크 3만5,000장, 의료진용 N95 마스크 1,200장, 손 소독제 5,000개 등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원삼 뉴욕총영사, 김민선 학장, 김도형 KAPAC 이사 등과 함께 2015년 북미이산가족 상봉 결의안(HRes.40)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뉴욕주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랭글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 왜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일궈냈



▲ 미국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뉴욕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위 사진). 뉴욕 주지사실에 전달할 의료용품을 가득 실은 차량(아래 사진). © KAPAC

다.”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님과 캐시 호철 부주지사, 그리고 뉴욕주, 나아가 미국을 대신해, 오늘이 구호물자 기증뿐만 아니라, 한인사회가 우리에게 그동안 항상

보여준 우정과 연대,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에 의지할 수 있는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대신해 전화 메시지를 보내온 캐시 호철 뉴욕주 부주지사는 “한인사회가 이런 국가적 위기 때 힘을 모아 귀한 의료용품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앤드루 주지사님과 함께 놀랐고 감동을 받았다.”며 “힘든 이들에게 한인사회의 이런 아름다운 기부가 용기를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호품을 전달한 한인사회 측은 전달된 구호품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원과 필수업종 노동자들에게 우선 분배해줄 것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지난 3월 말 KAPAC이 공식 제안해 시작된 미 병원 의료진 최전선(Frontline Responders) 마스크 보내기 운동은 현재 미주 전 지역으로 확산돼 미주 민주당,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 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승운



- Income Tax Return ■
-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
- Tax Planning Service ■
- Tax Audit Representation ■
- Payroll Services ■
- Sales Tax Return ■
- 사업체 분석 ■
- Accounting System 상담 ■
- Member of C.S. ■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편

Michael S. Oh CPA

한인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교회, 동문회 및 개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미국병원 의료진을 넘어 경찰서, 소방서, 홈리스 쉼터 등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KAPAC은 이미 UCLA대학병원, 흑인 지역 마틴 루터 킹 커뮤니티 병원, 시애틀 하버뷰 커뮤니티 병원 등의 미 의료진과 한인타운 병원 및 한인홈리스센터 등으로 N95 의료용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한인검사협, 가정폭력·사기범죄 주의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인종혐오 및 각종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검사협회(KPA)가 한인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KPA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Resources for the Community During the COV-19 Pandemic’이란 자료를 통해 “KPA는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인종혐오 범죄, 그리고 소비자 사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높은 주의를 지역사회에 요청드린다.”며 “만일 그러한 피해사실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A는 이어 “신고 시 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긴급상황이라면 911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KPA는 또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신고 번호인 1 (800) 799-7233로 전화할 수도 있다. 핫라인은 365일 24시간 연결 가능한 피해자 지원 변호사와 한국어어를 포함한 200개의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언어문제로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KPA는 긴급하지 않는 상

황에서는 311 또는 (877) 275-5273 LAPD로 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A는 “연방과 주정부의 긴급재정지원 및 세금 환급과 관련된 사기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세청(IRS)은 긴급 재정 지원이나 세금 환급을 이유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당신의 재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범죄를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